

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



만화로 배우는 청렴이야기



순조 때 문신인 서기순 선생은 대제학을 거쳐 이조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해 5대에 걸쳐 세 명의 정승과 네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의 자손이었지만 청렴을 가풍으로 삼았다. 서기순 선생은 항상 청빈함을 강조하여 집이 비바람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다고 한다.

홍한주는 서기순을 일러 “현달하고도 이처럼 한미하게 사는 선비는 오직 이 사람뿐” 이라고 평가하였다. 순조에 청백리로 낙선되었다.

가 가

가

“ ”